

월드뷰

WORLDVIEW

01

JANUARY · 2018

ISSN 2234-3865



개혁인가? 보복인가?
적폐청산 어떻게 볼것인가?

COVER STORY

CBMC 중앙회 회장 두상달 장로를 만나다

COLUMN

올바른 국가개혁과 법치주의
적폐청산을 어떻게 이해할까
민주주의 사상과 적폐청산
적폐청산은 정당한가?

01



9 772234 386007

ISSN 2234-3865 값 5,000원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한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

기쁨병원 자체 개발한 ‘최소절개 무인공막 탈장수술법’으로 20분만에 집도



103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개원 이래부터 현재(2017. 05. 30)까지 탈장수술 **12,136** 건 달성

기쁨병원은 국내최초로 탈장센터를 개설한 강윤식 원장이 통증과 재발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을 개발하여 국내 지방이나 해외 22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탈장전문 외과병원입니다.



정확 완벽 따뜻
기쁨병원

www.gipumhospital.com

서울 강남구 도곡로 122
(뱅뱅사거리 위치)

02)570-1234

이미 완전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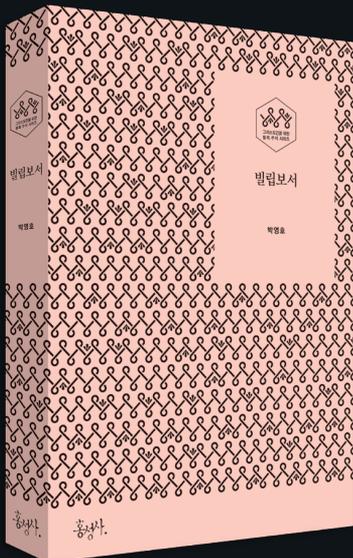


빌립보서

로마적 삶이 지배적인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기

빌립보는 로마가 퇴역군인들을 위해 세운 식민지였다. 그곳은 로마적 삶의 양식을 응축한, 또 하나의 로마였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시민의 특권을 자랑스레 누리며 살아갔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나라의 삶을 구현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었다. 로마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간절함을 담아 편지를 쓴다.

박영호 지음 / 304면 / A5변형 / 17,000원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는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이,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한국 교회 독자들을 위해 집필합니다.

시리즈의 특징

- 1 학자들의 논쟁보다 본문 자체의 해석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루었습니다.
- 2 단어 중심보다 문단 중심 주석으로 통독이 가능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해석들을 수록하였습니다.
- 3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표, 지도, 배경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 4 질문과 적용, 묵상을 돕는 글을 각 장 끝에 실어 성경 공부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묵상에도 유용합니다.
- 5 쉬운 문체로 쓰되 최신 학문 성과를 반영하였습니다.

Contents

JANUARY · 2018



COVER STORY

커버스토리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중앙회 회장 두상달 장로 7

SPECIAL

발행인의 글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 김승욱 4

대표주간
의식의 적폐를 청산해야 | 손봉호 18

기획칼럼
올바른 국가개혁과 법치주의 | 조영길 21
적폐청산을 어떻게 이해할까 | 이인철 28
민주주의 사상과 적폐청산 | 성기진 33
적폐청산은 정당한가? | 이상원 39



WORLD VIEW

2018년 1월호 | WORLDVIEW | 통권 211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월드뷰>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WORLD VIEW



CULTURE

연재칼럼	
정치관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45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과 적폐청산 김철홍	50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1) 이우제	57
“아유 레디 투 고?” (Are you ready to go?) 최충희	63
손봉호의 유머 모음	
“역사적인 단초”	18

NEWS

사무국 소식	66
--------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김승욱 교수 (발행인)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연말이면 의례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말 작년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헌정사의 처음 있었던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변화와 전쟁의 위험 등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해서 계속 구독하시면서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와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첫해의 표지인물로는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중앙회 두상달 회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월드뷰』가 삶의 현장, 즉 가정, 직장, 사회 등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한국기독실업인회의 활동은 본보의 정체성에 꼭

맞는 활동입니다. 특히 (주)칠성산업의 대표인 두상달 장로는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아내 김영숙 원장과 함께 (사)가정문화원을 운영하면서 부부 가정사역 상담사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40년 노부부가 함께 결혼 주례를 하는 모습이 특이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김세중(아주대 겸임교수, CBMC 새서울지회 증경회장)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호의 특집 주제는 “적폐청산: 개혁인가 정치보복인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는 기치 하에 적폐청산을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집권 후에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며, 조선시대의 당쟁의 후유증으로 발생

한 사회에 준한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다룬 것은 사회 이슈를 주로 다루는 본보가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를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는 이유로 민감한 주제를 외면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를 분별하는 눈을 키워준다는 본보의 발행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손봉호 대표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부패가 심하고 투명하지 못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논란은 있지만, 적폐청산으로 부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정권교체로 쌓인 비리를 뿌리뽑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계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영길(I&S 법무법인) 변호사는 보편적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 정부의 개혁은 성경적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진정한 국가개혁은 성경에 부합되는 법치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철(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변호사는 언론적폐청산이 이해관계자인 노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성기진(정치철학) 박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는 절차나 다수결 법칙 등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의 통치를 그나마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였으므로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적법절차를 따르냐의 논리보다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원(총신대) 교수는 적폐청산 작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둘째 공정한 과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을 평가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연재 칼럼들을 시작합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이우제(설교학)교수께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사는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매월 연재합니다. 그는 요한 계시록이 불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온상이 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65권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관한 것이며,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종말론은 현재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처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원론적 사고를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어린 양과 교회의 승리라는 미래 때문

에 새로워지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게시물을 궁극적인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오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읽기 칼럼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특집 주제와 연결이 되는 영화를 소개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김철홍(장신대) 교수와 남정욱(숭실대) 교수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김철홍 교수가 레미제라블과 적폐청산을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장 발장 유형의 인간과 자베르 형사 유형의 인간의 차이를 ‘자기 의(自己義, self-righteousness)’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적폐청산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술 칼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웅대(국민대 조소과) 교수와 심상용(동덕여대 미술평론)교수께서 기독교 미술 작가의 작품 및 전시회도 소개하고, 중요한 기독교 미술에 대한 다양한 소개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엮은 최충희 사모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2002년에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최충희 사모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에서 22년간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있었던 일들을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선교회’ 라디오 방송에서 <최충희 칼럼>을 진행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칼럼 중의 일부는 단행

본 『희망 온 에어(홍성사 간)』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칼럼 중의 일부를 본보 지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워진 『월드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편집위원	곽우정	월드뷰 편집간사, 장신대 신대원 졸업
	김정효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플러신학교 신약학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배성민	강동대 교수, 고려대 체육교육과 졸업, 고려대 스포츠심리학 박사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전 합동신대학원대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이경원	SICA(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학원)원장,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이상규	고신대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unio cum christo의 편집위원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정석	전 KBS PD,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김승욱



손봉호



곽우정



김정효



김철홍



김태황



배성민



송인규



이경원



이상규



이승구



이우제



조영길



한정석

자문위원

강진구 (고신대) 김대인 (이화여대) 김의원 (총신대) 김지원 (백석대) 박동열 (서울대)
 박상은 (안양샘병원)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신국원 (총신대) 양승훈 (VIEW) 이인용 (삼성전자)
 이재희 (가천대) 정희영 (총신대) 조성돈 (실천신대) 조성표 (경북대) 최용준 (한동대)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중앙회 회장 두상달 장로

현재 한국기독교실업인회 CBMC 중앙회 회장인 두상달 회장은 (주)칠성산업의 대표이며, 중동선교회, 전국가독교직장선교연합회, 한국가정문화원, 한기총청소년지도자대학 등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1호 가정사역자로도 유명하다. 삶에서의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몸소 평생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달의 표지 인물로 초대했습니다.

인터뷰 김세중 아주대 겸임교수, 전 오후우스 대표, 새서울CBMC지회 중경회장, 극동방송 CBMC 칼럼 담당.

김세중: 먼저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신앙생활이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두상달: 저는 젊은 시절에 무역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평생 무역과 건축을 해왔습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 SK에 5배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전원주택개발사업을 합니다. 저는 무역업을 주로 했는데요, 술을 안 먹고 접대 안하면 무역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30~40년 전에는 바이어들을 의례 술집이나 호텔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집으로 Buyer를 초청해서 된장찌개나 고추장 등 순전한 한국도속식단으로 한상 차려 안방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게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저도 그나라에 가면 자기 집에 초청하고 가족끼리 친해지다 보니 신용이 생겨서, 리볼빙(Revolving)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 100만 불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도 내에서 수출하고 소진되면 다시 100만 불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역금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술 안먹는 것이 신용으로 변해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스터 L/C 받아서 그것으로 한국의 하청 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매번 결제 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기업들이 어음을 끊어주어서 몇 달씩 늦게 결제해 주었습니다. 이자가 당시에는 연 18%~22%로 엄청나게 높아서, 몇 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면 몇 십 퍼센트씩 가격을 깎이는 셈이지요. 그런데 나는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니, 하청업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제쳐놓고 제 일을 수주하며 먼저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입상에게 받는 이점, 하청업자들에게 받는 이점들이 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업성공이라는 축복의 통로



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사업에 도움이 된 것은 또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보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쌀 99섬 갖은 사람이 쌀 1섬 갖은 사람 것을 뺏으려 합니다.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욕 먹이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처음 시작할 때 허례허식을 버리고 10평짜리 사무실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보다 더 크게 무역사무실 차린 사업가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대부분 망했습니다. 제가 신앙심에 기초해서 신용을 지키면서 검소하게 기업활동을 했더니 저절로 잘 되었습니다. 연합철강, 동국제강 등과 거래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무실 규모를 보고 믿지 못해서 공증하자고 하더니 신용이 좋으니, 나중에는 공증도 필요 없고, 오더만 달라고 했습니다. 기업에서 신용이 자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세중: 요즘 젊은이들은 창업보다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

위스에서는 훌륭한 앙트리프리너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시키는데, 한국은 좋은 직장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배 사업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요?

두상달: 저도 스타트업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쌀 한가마니 가지고 청계천 5가에서 좌판을 벌였습니다. 리어카에 껌, 엿 등을 놓고 팔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도전을 안 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여건이 나쁘거나 공부 못해서도 아닙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삼성에 취직하는 것만 바라지 말고, 삼성같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라, 그러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가속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전통적인 대기업들인 모토롤라, 노키아, 제니스, 코닥 등이 망했습니까? 경영 기법을 안 써서 그런가요? 노무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망한 이유는 종전방법



대로 관행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변화와 혁신, 도전과 창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가면 일부러 우버택시를 타봅니다. 우버의 자산가치가 80조원이 넘습니다. 현대차는 40조원이니, 두 배이고 미국 GM보다 높지요, 차 한대도 없고, 기업공개도 안 한 회사의 자산가치가 그렇게 많습니다. 숙소도 일부러 에어비엔비를 이용합니다. 에어비엔비는 호텔 하나 없는데, 힐튼호텔보다 자산가치가 높습니다. 모빌아이는 인텔에 17조원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기사가 626억원에 다음카카오에 팔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김세중: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젊은이들이 해외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두상달: 맞습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저는 우리 젊

은이들이 해외에도 도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국제기구에 기여하는 만큼 한국인의 자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못 채웁니다. 세계에 눈을 돌리면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도와주어야 할 땅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기구의 이사를 해서 아프리카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젊으면 거기에 도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 전대통령께 젊은이 10만 명을 2년 간, 월급 1500~2000불 주고 해외에 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 평화봉사단 보내듯이 말입니다. 그 중에 10~20%만 해외에 정착에 성공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조원 드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을 이기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한다고 하면서 별로 귀담아듣지 않더군요. 사실 KOICA에서 하는 것은 몇 백 명 수준에 불과합

니다. 이것을 일자리 만들기를 최대의 국정 목표로 삼는 현 정부가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국제적인 감각, 언어,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이럴 때 한 10만 명을 해외에 파송하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주게 되고, 국제 감각도 익히고 먼 훗날 큰 한국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세중: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정부도 일자리 늘리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고 있지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두상달: 현 정부가 지금처럼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기준교수께서 노조위원장인 프롤레타리아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5개 금융노조에 소속된 각 은행노동위원장들과 함께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조기준 교수의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돈도 호화판으로 썼습니다.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생산과 연결이 안되는 것은 나뉘먹기 분배일 뿐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됩니다. 젊은이들은 나누어먹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김우중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지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나 밖에 안 낳다보니, 자녀를 성냥값 속에 갇힌 아이들로, 규격화 된 아이들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여년간 성장률이 그렇게 둔화된 이유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을 보호막 속에 키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세대는 배수진을 치고 살아서 가방 하나 들고 5대양 6대주를 누볐습니다. 일본이 잘 살게되고 나니 다음 세대가 나약해져서 도전정신이 없어져서 그렇

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이제 자녀를 하나 밖에 낳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세중: 기독교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상달: 기독교청년들이 기도는 잘하고, 성경은 잘 아는데, 세상에 영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 지도자들은 선교사 나간다고 제게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두 선교 나가면 세상은 누가 책임지냐고 제가 묻습니다. 직장 다니는 기독교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근무 시간에 성경보고 기도하지 말라. 직장에서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비실비실하면 안된다고. 예배 순서지 만드는 일은 근무 끝나고 해라.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일보다 흠어진 6일이 더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행동하는 삶이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매주 과제를 준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통신호 지키기 과제를 주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신호등 무시하고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면 안되겠지요. 삶과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요. 한국교회가 소아병적으로 율타리치고 자기 교인들을 교회에 가두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는 CBMC 같은 단체 나가는 것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저는 CBMC가 잘 되어야 교회가 잘된다고 봅니다. 교회도 선교를 하고 하려면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 현금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청소년 사역은 모두 비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리고 청

소년 사역 몇 년 하면 또 그 부서를 떠납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30-40년 전에는 교회학교가 일반학교 사회교육보다 더 매력적인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사회학교가 교회학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인구의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하고, 실업인회도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CBMC도 사회공헌 팀을 만들었습니다.

김세중: 한국기독교실업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장로님께서 제가 활동한 새서울CBMC 지회를 창립하셨는데 어떻게 CBMC 활동을 시작하셨는지요? 그리고 CBMC가 기독 실업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나요?

두상달: 1980년대에 경제인 연합회의 최태섭장로님, 김인득 장로님, 이봉수장로님, 최창근장로님, 유상근장로님 등이 권유해서 경제인 조찬기도회 운영위원장을 한 18년 정도 섬겼습니다. 초창기 1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장 때인 1971년에 CBMC에 연결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울 세종호텔에서 한 50명이 한국대회로 모였습니다. 그후 서정환 회장님이 운영이사로 넣어주어서 일을 했지만 지회활동은 별로 안 했는데, 상공부 유득환차관이 지회를 시작하자고 해서 1996년에 새서울지회를 창립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실업인들이 모이다보면, 장점은 세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개하고 회복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독실업인에게 일터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내려놓고, 빈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세중: CBMC 중앙회 회장을 하시면서, 임기 중에 역점을 둔 사업이 무엇인지요?

두상달: 21세기를 대표하는 한 단어를 고른다면,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30-40년 동안 이 변화는 과거 1만년 동안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큼니다. 그래서 종전의 패러다임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정말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변화 속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한국기독교실업인회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강사풀을 새로 만들고, 건전한 후자 재정 확립에 힘을 썼습니다. 당진에 훈련센터를 세운다고 돈을 많이 거두었는데, 센터를 세우기도 전에 벌써 다 썼습니다. 저는 센터를 지어놓으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3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려고 센터를 세운다고 했는데, 올 사람도 없고, 강사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훈련센터의 발전적 진전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서울에 회관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포에 있는 이 회관에서는 찬송도 크게 못 부릅니다. 저희 회원들에게는 서울에 센터

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방송 부지, 아시아연합대학원, 서울 장신 등을 세운 땅을 다 기독교실업인들이 기증했습니다. 우리가 회관을 서울에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벌써 다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무국 업무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김세중: 한국에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상달: 저는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죄를 짓는 것과 같이, 기업가가 돈을 못 벌면 그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기 문제가 생깁니다. 돈 벌어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더 많은 봉사과 섬김을 위해서 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5.0. 시대라고들 하지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사회적인 기여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는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용과 행복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 중에 농사짓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고객에게 마음속으로 “당신 수지맞았다.”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사 가니까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수지맞았고 행운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을 파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가성비가 좋으면 사람들이 사게 되어 있으니까요. 물건을 팔아보면 입소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광고보다 더 좋은 것이 써 본 사람이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용 경험을 공유한 SNS를 보고 정보를 나누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더욱 중요하지요.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실업인들을 존경합니다.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 미국의 내과의사 앨런 룩스(Allan luks)가 ‘선행의 치유력(2001)’라는 책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도우면서 혹은 돕고 나서는 몸에서 신체적으로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신체에 몇 주간 긍정적 변화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신적인 효과나 기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일어난다. - 위키백과-)라는 말이 있지요? 한국 부자들은 미국 부자들에 비해서 자기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데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의 이병철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 등을 애국가라고 생각하고, 광화문에 이들 동상을 세워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약했습니다.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살았던 배고팠던 세대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첫 세대는 빵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빵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대는 문화를 찾ند다고 합니다. 환경,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찾ند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3세대는 신앙, 정서 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세대 재벌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세대부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김세중: 올해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한국대회를 독특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두상달: 보통 기독교실업인대회는 콘컨벤션 센터나 호텔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용도 절약하고 험금도 해서 훈련소 교회 건축을 돕기 위해서, 2박3일의 행사를 논산 훈련소에서 했습니다. 나무반에서 숙식을 하고 비용을 아껴 헌금을 해서 훈련소 교회를 건립하는 건축기금으로 17억여원을 작성했습니다.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헌금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책임의 실천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CBMC가 섬길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김세중: 아내인 김영숙 권사님과 함께 사단법인인 가정문화원도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요? 어떤 이유로 가정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상달: : 오래전에 아내가 자꾸 꼬드겨서 부부생활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후에 아내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저 여자가 저렇게 우나 싶어서 민망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내에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내 말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던진 말과 표정 하나하나가 다 상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병도 알면 고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나 같은 남자가 어디에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중심적으로 살았지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뀌었지요.

어느 모임에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강의했습니다.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미국에 페밀리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한국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풀러신학교에서 가정회복(페밀리 세라피) 분야에 박사학위까지 했습니다. 강의할 때 둘이 하는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 저희들에게 강의하는 대로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우리는 강의하는 대로 사는게 아니고, 사는 대로 강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강의합니다. 남자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남자 입장에서 강의하고, 여자는 여자입장에서 아내가 강의합니다. 저희가 방송에 나가면 국내 1호 부부강사라고 합니다.

김세중: 지난 번에 JTBC에서 부부 주례사가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강의도 함께 하시는 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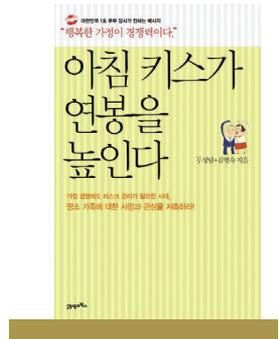
두상달: 예. 우리 부부는 주례를 함께 섭니다. 우리 부부는 주례를 하면서 싸우라고 합니다. 부부가 안 싸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싸울 때도 이렇게 싸우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싸우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싸우더라도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나도 피붙이를 거론하지 말고, 폭력을 하지 않고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하는 주례자는 우리부부 밖에 없다 고들 합니다. 신랑신부에게 우리가 쓴 책을 주고, 이 책을 읽고 싸우고, 정 안되면 우리 찾아오라고 합니다. AS도 해 주는 셈이지요. 부부가 안 싸우면, 그것은 안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쪽이 참은 것입니다. 적당한 때 폭발해야지 안 그러면 암으로

갑니다. 가스도 나오지 않으면 폭발하지요. 싸움도 대화입니다.

김세중: 보람있는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요?

두상달: 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다시 결합하는 일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놈이 죽일 X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죽일X이구나” 그러면서 이혼장 찢고 평평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은 양평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이혼부부가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방이 다 차서 할 수 없이 같은 방을 쓰라고 했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합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통곡하고 우는 모습도 봅니다. 나부터도 결혼면허증이 없이 남편역할, 부모역할을 했습니다. 무면허 아빠, 남편, 아내 역할을 하지요. 내가 좀 더 일찍 가정 원리 알았더라면 좀 더 훌륭한 아빠, 멋진 남편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 후회를 합니다. 내 방식으로 한 것이 역기능을 했습니다. 아들 진혁이에게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형제 중에 그 녀석이 아이큐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해서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노골적으로 사과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훌륭한 아빠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그때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개방적 아빠입니다.

가정 해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청소년 범죄문제도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업처럼 가정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있어 성공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국가의 성공비결



입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쓴 부부교과서입니다. 교통사고도, 부부싸움 하는 날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부사이가 좋으면 직장 소통도 잘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회사의 정착률도 높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부싸움이 많으면 이직률 높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가정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그 여파가 회사로 미칩니다.

김세중: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자주 교회 안의 행사에만 교인들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 직장 등 ‘흩어지는 교회’ 생활도 매우 중요한데, 장로님께서 가정 사역과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런 불균형을 고치는데 평생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상달: 가정이 망가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교회가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관계도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옛날같



이 폐쇄된 사회가 아닙니다. 동거문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다니고 결혼생활 하는 사람과 그런 사전 준비 없이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많습니다. 예비학교, 신혼학교, 은퇴학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저같이 나이가 들어도 그 위치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격언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HOW CAN I SPENT THE LAST CHAPTER OF MY LIFE) 하는 모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세중: 중동 선교를 오래 하셨지요? 제가 대림산업 쿠웨이트 현장에 있을 때 두장로님 처음 뵈었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기독교실업인으로서 선교하신다고 현장 캠프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선교하는 실업인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선교활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주시지요.

두상달: 국민일보의 임한창 국장이 나를 3D 업종 선교만 한다고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3D선교

란 중동선교, 청년 선교, 교도소 선교처럼 어렵고, 힘든 선교를 말합니다. 제 아내가 교도소 선교를 34년째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배동 카페골목 정화 사업을 16년간 했습니다. 방배동 카페골목이 한 때 한국의 유명한 환락가였습니다. 주제가를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빗자루를 몇 십 개 만들어서 청소하고, 전도지 돌리고, 별 일을 다 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중동선교도 3D 선교입니다. 제가 중동선교를 한 지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처럼 저도 역지로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중동에 아무런 연구도 없었습니다. 중동선교회 창립시 한분을 세우기로 했는데 한국교회와의 관계로 그 분이 안된다고 하고, 나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C.C.C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동선교일은 일 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고 3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중동 선교사 80명 정도를 관리합니다. 그들은 정말 삶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중동 선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고,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여호와 이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세중: 정말 장로님께서 가정사역, 기업활동, 선교활동 등 기독교 정신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멀티플레이어로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분 중의 한 분 이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WORLDVIEW

COLUMN



손봉호의 유머 “역사적인 단초”

농땡이 청년 하나가 정월 초하룻날 교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농땡이: “야! 드디어 구약의 신비가 풀릴 역사적 단초가 마련됐어!”

친구: “거 잘 됐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지?”

농땡이: “그건 말이야, 내가 오늘부터 구약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 칼럼의 내용은 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월드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의식의 적폐를 청산해야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에 나섰다. 그 동안 쌓인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 임무다.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할 수 없는 것처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 부패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주로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일어난다.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물론 사회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정치보복이라는 냉소적 비판이 없지 않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는 가증스러운 불의다. 그런데

이번 작업이 순수한 적폐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는 이념에 따라 다르게 판정되고 있어 법률 지식과 수사권이 없는 보통 시민에게는 어느 것이 옳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던 정치보복이던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지고 모든 잘못이 처벌되는 것은 국민에게는 무조건 이익이다. 정치보복도 그 자체로는 옳지 않지만 보복하는 쪽도 후에 보복 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조심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순수하든 불순하든 적폐청산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일반 시민이다. 그리고 지금 수준의 시민의식과 언론의 비판 능력으로도 후진국에 나타나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막을 수 있다.

어쨌든 “공적 임무를 맡은 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내부자들이 외부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패가 너무 오래 계속되어 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6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혹은 투명성지수)가 세계 52위라고 했다. 일본 20위, 대만 31위, 아프리카의 빈국 보츠와나 35위 등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탈세율은 26.8%로 그리스 수준이고 보험사기는 일본의 14배나 된다. 최근 적폐청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들만 보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가 객관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민주화, 경제, 교육, 과학기술, 스포츠 등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윤리에는 매우 부끄러운 후진국이다.

부패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 카우프만(D. Kaufman)은 “부패가 경제발전의 가장 심각한 방해거리”(the single greatest impediment)라 했다. 만약 우리가 일본수준으로만 투명하면 경제가 매년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패가 정의를 파괴하고 갈등을 키워 국민을 심히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부패는 “가난한 자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행위”(세계은행)고 뇌물은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H. Bury)이란 주장도 있다. OECD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갈등비용은 GDP의 27%나 된

다 한다.

물론 그 동안 부패가 조금씩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 언론자유, 시민사회의 성장 등이 이에 공헌했다. 최근에 실시된 김영란 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언론자유가 확고하더라도 시민의식의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패문화는 사라질 수 없다. 그 동안 부패가 관행이 되어 암이 걸려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부패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각이 둔해졌다. “적폐청산”을 반기기보다 “정치보복”을 비판하는 의식에도 부패에 대한 불감증이 숨어 있다. 이런 “도덕 불감증”이 고쳐지지 않으면 적폐청산은 일시적인 진통제로 끝나고 말 것이다.

한 사회의 윤리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적 종교가 책임져야 한다. 세계문화가 세속화되어 종교의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깨어 있는 고등종교는 도덕성 제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지배종교와 청렴도 간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통일이 된지 근 30년이 되었는데도 동독 출신 독일인은 서독출신 독일인만큼 정직하지 않다 한다. 무신론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결코 윤리 수준이 높을 수 없다.

한국에서 교인의 숫자나 사회적 영향력에서 가장 큰 종교는 개신교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개신교가 지금보다 훨씬 약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회 각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고 정직과 공정성에도 앞장섰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힘이 커진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목사들이

적폐청산이던
정치보복이던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지고
모든 잘못이 처벌되는 것은
국민에게는 무조건 이익이다.

되어 그런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생존하고 제대로 성장하여 세상을 바로 이끌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기독교계의 적폐청산이 벌어져야 한다.

논문과 설교를 표절하고 단체의 장이 되기 위하여 뇌물을 뿌리며 심지어 대형교회 세습까지 감행한다. 이번 적폐청산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기는커녕 세상의 구정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적폐청산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곳이 바로 한국 기독교계가 아닌가 한다. 지난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당시 기독교의 적폐청산이었다. 만약 그런 개혁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류사회에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당시의 천주교처럼 비윤리적이고 비신사적인 행위들이 관례로 정착

올바른 국가 개혁과 법치주의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사관계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훼손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

서론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대대적 언론 보도를 계기로 현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례 없는 대규모의 연속된 촛불 집회들 이후에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계기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핵심적 국정기조들의 하나는 적폐세력청산이다. 적폐세력청산을 위해 가히 범국가적이라고 할 만큼 수 많은 국가 및 공공 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법에 의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대대적 심판이다.

국정원 적폐 청산을 위해 출범한 국정원 개혁위원회회를 비롯하여 수 많은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개혁위원회 내지 적폐청산위원회 등과 같은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이 이미 구성되었고 새롭게 또 구성되고 있다. 위 위원회들은 해당 기관 또는 분야의 과거 적폐세력을 찾아내는 광범위한 조사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기약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의 이례적인 강도 높은 조사 결과 이전 기관의 리더십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법행위 혐의들이 나타나면 그 혐의사실들을 우선 언론에 공표하고 동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 받은 수사기관들은 청산을 요청 받은 불법행위자들의 범법행위들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 압수, 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결과 불법행위들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검찰은 관련 사건 관계자들을 법원에 기소하고 있다. 기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구속영장들이 발부되어 많은 사람들의 구속이 집행되고 있다. 법원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재판에 기소되고 있는 수많은 적폐세력 사건들에 대한 재판심리들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위시해서 수 많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 및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주요 인물들의 범법행위들에 대한 재판들이 계속 해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적폐 세력 검찰 수사를 2017년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시한을 두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뜻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국가개혁을 위해 적폐세력에 대한 법률의 철저한 심판을 전개하는 것을 국정의 주요 기본 방향의 하나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국정기조는 2018년도뿐만 아니라 집권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 명백해 보인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올바른 국가개혁을 위해 참된 법치주의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특히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국가개혁을 위한 법치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

지, 반성경적 문제점과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성경적 가르침에 비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올바른 국가 개혁의 내용의 기준과 방향과 법치주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치주의의 당연한 대응은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률에 따른 엄정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동일 유사한 불법행위들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준법행위들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누적되어온 불법행위들을 의미하는 소위 “적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법자들에 대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적폐청산”은 법치주의와 부합하는 면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성경도 다스리는 자들이 가지는 칼은 불법(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여(로마서 13:4)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국법의 심판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공의로운 법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언급되어 왔다(신명기 4:8, 16:20, 사무엘하 23:3, 이사야 32:1, 예레미야 9:24, 아모스 5:24, 베드로전서 2:23, 요한계시록 19:11 등). 널리 알려진 표현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아모스 5:24). 이처럼 공의로운 법이 다스리는 국가원리인 법치주의는 국가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공의로운 법률이 지향해야 할 정의는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 공의 내지 정의이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인간들이 자신의 뜻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

니라 창조주께서 정해 놓으신 공의를 겸손하게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수의 인간들이 뜻을 모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을 제한 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법실증주의 관점은 법치주의를 내걸지만 다수 인간들이 자신들의 뜻을 법률의 이름으로 구현하려는 인치주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을 통한 독재의 폐해를 생생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 사례들이 나치 파시즘이 지배했던 독일과 공산당 1당 독재를 시행했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국가들이다. 아무리 다수가 뜻을 모아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정의로운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자연법주의 관점이 국가의 법률은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따라야 한다는 성경적 법률관에 부합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는 다수의 뜻을 이유로 하여 넘을 수 없는 기준이므로 성경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다(출애굽기 23:2).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는 부나 권력 같은 세력을 가진 자의 편을 두둔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의 편을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령하고 있다(레위기 19:15, 출애굽기 23:3).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세력들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 이는 더 이상 진정한 법치가 아니다. 나와 너, 우리와 너희로 나누어 법률 심판을 나와 우리는 면제한 채 너와 너희로만 향하는 편향적 적용을 할 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소위 ‘내로남불’의 폐해를 발생시킨다. 이는 법치로 가장하여 특정 인간 세력이 타인들만 법의 심판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배제하려는 뜻을 관철하는 인치로 전락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특히 피해자는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인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가해자를 향해 친히

정부는
국가개혁을 위해 적폐세력에 대한
법률의 심판을 전개하는 것을
국정 방향의 하나로 하였고,
적폐청산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수를 갚는 사사로운 심판을 해서는 안되고 대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성경은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로마서 12:9).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담은 법률에 의한 독립기관의 조사와 심판에 맡기는 것으로 구현된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피해자들이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권 내지 심판권을 가지면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되어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 조사와 심판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할 수 있는 공정성이 담보된 독립적인 제3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또한, 법의 심판의 적용하는 수사와 기소 대상자들은 누구의 행위이든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정권 참여자들만이 적폐이고, 새로이 정권을 잡은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법치를 내세운 정치 보복으로 귀결될 위험에 빠진다. 부자들만이 적폐이고 가난한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거나 자본가들만 적폐이고 노동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역시 법치를 가장하여 실체는 가난한 자들이나 노동자들을 내세운 독재가 되어 버려 성경적인 공의로운 심판에 어긋난다. 성경은 가난한 자와 약자의 억울함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수 없이 언급하면서도 법에 의한 심판(재판)을 할 때 세력 있는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만 재판하라고 너무도 명백히 명령하고 있다(레위기 19:15, 출애굽기 23:3).

현 정부가 내세워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 국정 기조는 그 기준이 공의로운 법률이기 보다는 다수 국민의 뜻인 여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면이 있고, 그 추진 주체들이 공정성이 보장되는 독립 기구이기 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피해자이거나 이를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면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그 적용 대상에서도 이전 정권 담당자들에게 집중되거나, 노조들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좌파단체들보다는 우파단체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우려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우려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성경적 법치주의에 비추어 보면 현재 문제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기조는 성경적 공의를 더 잘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성경적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더 앞서는 것이 필

자의 솔직한 소감이다.

진정한 국가개혁은 성경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법치주의는 법치주의로 위장한 인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또 다시 법적 심판 대상이 되는 새로운 적폐가 될 수 있음도 명백하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려면 현 정부의 통치담당자들은 적폐청산 활동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진정한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법치의 기준을 국민의 변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공의로운 법률로 삼아야 하고, 추진하는 담당자들을 가해자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3자로 구성하며, 적용 대상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불문하며 어느 정권에 있던 사람들인지도 불문하여 공정하게 적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추진되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적폐청산 국정 기조 실행담당자들 중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원하는 성도들은 위와 같이 성경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정을 이끌어 가 주기를 호소하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통치 담당자들을 도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다.

올바른 국가 개혁의 절차와 법치주의

국가 개혁은 방향과 내용도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하지만 절차적으로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마땅하다. 법치주의는 올바른 국가 개혁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절차도 제시한다.

법률에 의한 심판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에 따라야 한다. 법률에 따른 조사와 수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조사 내지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할만한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혐의)을 가질만한 단서들이 자연스럽게 제공될 때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 또는 정상적인 제보나 자발적 신고에 의한 인지 등이 있을 때에 심판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수사가 개시될 만한 합리적 의심 근거들이 없는데도 막연한 의심으로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혐의를 찾아내려는 이른바 탐색적 수사가 되면 그 수사권을 휘두르는 세력들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며 자신들의 부당한 뜻을 관철하려는 권력 남용이 가능하게 된다.

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종 개혁위원회나 적폐청산위원회는 개혁이나 적폐청산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이전 책임자들의 불법행위혐의를 찾아내는 수많은 조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1차적 조사들을 행하는 각종 기관들은 사실상 법률 심판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수사 내지 조사를 행하고 있다. 그 결과 수사할 만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내지 조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 세무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 노동청 등 국가기관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증거들을 송부하며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범 정부적이며 전 국가적으로 전개되는 대대적인 조사를 행하는 각종 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부여 받은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조사권을 부여 받지 않은 수많은 조사 기관들이 대통령, 각부 장관들 및 각종 기관장들에 의하여 만들어 졌고 만들어 지고 있다. 또한 각종 과거사 조사위원들의 성향도 공정성을 가져야 마

맹한데 현 정부에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구성의 법적 근거도 충분치 않고 구성원들의 공정성도 의심되는 각종 조사기구들은 특별한 수사나 조사를 해야 할 계기가 충분치 않음에도 이전 정권이나 경영권 담당자들의 불법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여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러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정권 교체기 마다 이전 정권의 불법이나 비리들에 대한 적지 않은 법적 조사와 심판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수 많은 기관들마다 각종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을 구성하여 범 정부적, 범 국가적 조사들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 범위와 강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인다.

조사를 개시할 만한 정당한 단서가 없는데도 막연한 의심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들이나 부도덕한 행위들을 찾아내는 방식은 소위 먼지떨이식 수사로서 대표적인 수사권의 남용현상이다. 모든 인간들은 연약하여 법률적 또는 도덕적인 결함과 약점들을 많은 적든 가지기가 쉬운 법이다. 그러므로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가 만연하게 되면 그러한 조사 내지 수사권을 가진 자들 앞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자신도 언제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에 떨며 수사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나 억압 등에 맞서기 어렵게 된다.

또한 법치주의의 절차인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 역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특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적용하고 특정한 사

람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절차적인 면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 된다. 특히 심판할 때 성경이 금하도록 명하신 세력 있는 자들의 편을 들게 되는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레위기 19:15).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기관의 구성과 조사 개시와 심판 적용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진정한 법치주의 절차에 비추어 보면 현 정부의 범국가적 적폐 청산 기조는 정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 적폐청산이 법치주의의 절차적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편향성 때문에 또 다른 적폐로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결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혁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으로 법치주의를 삼은 것은 공의로운 법률에 의한 국가의 다스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의로운 국가 통치를 추구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치주의를 통한 국가 개혁이 인치를 법치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참된 법치를 따라감으로써 반드시 성공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적 법치주의는 사람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높이려는 겸손한 자세가 핵심요소다. 심판을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반영하는 법률에 맡기고 이를 따르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률 역시 경외해야 마땅하다. 교만하게 자신의 뜻대로 법률심판을 조

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공의로운 법률심판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률을 겸손히 경외하는 자세를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인 대통령, 국회의원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고 통치자들이 인치의 유혹에 빠져 법률을 자신들의 뜻으로 조종하려 한다면 많은 국민들도 법률을 경외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올바른 국가 개혁의 방향, 내용, 절차로서의 성경적 법치주의는 특정인인 대통령이나 특정세력인 집권세력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반영하는 법률에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특정 시대 국가 통치를 담당하는 자들이 법률 심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도하는 뜻을 구현해보겠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법치주의를 가장한 인치주의로 귀결될 위험에 빠진다. 이는 결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또 다른 불의한 행동들을 초래하여 또 다시 법에 의한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법치주의를 내건 적폐청산 기초의 구현행동들이 성경적 법치주의에서 벗어나서 인치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공의로운 법치로 돌이켜야 마땅할 것이다. 이 땅 위에 진정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성경적 공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적 법치주의에 부합되도록, 국정이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각 다스림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특정 시대 특정 집권자 세력들의 뜻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

나님의 뜻에만 주목하겠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적 공의로운 길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가 비추는 길을 따르는 방향으로 자신의 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실천 행동들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각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이 땅인 우리 조국에 구현되도록 하는 일에 믿음과 용기로 헌신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 상황들 속에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인철 변호사 (이인철 법률사무소)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영화진흥위원회 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있다. 미디어와 문화 및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소용돌이 속에서

2017년 한국사회의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이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의하지 않고 폭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원칙이나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낡은 폐단을 없애고 쇄신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정치적 보복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으로 의심받고 있다.

적폐청산의 발단이 광장의 구호에서 시작되고 미디어에 의해서 확산되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한편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뒤섞

이면서 변덕스러운 여론에 의해서 전개되는 여론 정치라는 지적이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실과 증거에 뒷받침되지 아니함에도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이거나 편파적인 주장을 따라서 적폐라고 단정 짓는 상황은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다.

공영방송사에 대해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소위 언론적폐청산은 폭압적인 방법도 문제이지만 이해관계자인 노조에 의해서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공영방송 이사들이 단지 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온갖 부당한 공격을 받고, 그들에 의

해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이 퇴진 요구를 받았다. 제시되는 사퇴이유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비난성 주장들이 많다. 노조가 선호하는 사람들로 방송사의 이사진과 경영진을 구성하는 결과에 이른 것을 보면 노조가 직접 방송을 경영하겠다는 것이어서 공영방송의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친정부적인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방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적폐청산은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 명칭을 달리하는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과거의 적폐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가해자와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사내용을 백서로 만들어서 발표함으로써 조사 결과를 확정 짓는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방어의 수단이 허용되며 판결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의 원칙이다.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수사기관이 아닌 비공식 조직이 실질상의 수사를 하고 법관이 아닌 비공식 기관이 재판을 하며 법원이 아닌 기관이 백서라는 형태로 판결을 내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권한있는 기관이 아닌 비공식적인 조직이나 이해관계자의 관여 하에 여론몰이를 통해 진행되는 적폐청산은 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에 의한 사람 쫓아내기와 흡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한 조사와 결론을 내리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자격이 부여

된 사람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진행 절차를 규정하여서 법에 따른 조사와 결론 도출이 되어야 한다.

수사권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실질적인 재판을 하고 조사의 결과를 백서라는 명칭으로 발간하여 판결이 아님에도 조사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근거없는 월권행위이며, 위법한 행위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사실상의 수사와 판결을 내리는 조사절차가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행해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적폐청산조직을 통한 홍위병식의 인민재판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여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기존의 공식적인 조직들을 무력화시키기에 이른다. 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비공식 조직이 공식적 조직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면 기존의 공적인 조직의 권위는 무너질 것이고, 법과 절차에 기초해야 하는 사회 질서가 허물어지는 결과에 이른다.

사회의 주류가 된 세대의 정치적 꿈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과제로 삼는 문제인 정권의 높은 지지도는 적폐청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촛불시위에서의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의해서 달성된 정권의 몰락과 새 정권의 탄생은 보수에서 진보로의 이념의 축의 변화라는 설명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교체 결과라는 측면이 크다.

1980년대 당시의 젊은 세대는 한국근대사와 한반도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배우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통해서 그들의 시각을 실천하

는 경험을 가졌다. 80년대 소위 386세대는 한 세대의 공통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기정체성을 가지게 된 세대다. 그들 386세대는 2008년 광우병 보도 때 촛불을 밝혀서 정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였고, 10년의 기간이 지나 다시 촛불을 들게 된 것은 그들이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념 승패의 결과라기 보다는 공통된 사유를 정체성으로 삼은 한 세대가 시간이 흘러서 다수의 위치를 점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들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오늘날의 주류 정체성의 기저에 있는 80년대 386세대의 소위 이념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폐쇄적 종족주의와 같은 결코 진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념 성향으로 비판을 받는다. 여하간 당대의 공유된 지식은 실천이라는 경험의 지형하에서 한 세대를 그들만의 공통의 정체성으로 형성하였다. 이념 시대의 퇴조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급격한 현실 변화에서도 위와 같이 경험으로 확보되고 정서적 유대로 공유된 그들 세대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이 세대의 생각이 우리 사회 주류의 사고방식이 되었다.

주류가 된 이 세대가 공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가치가 그 실천에 있어서 앞서 본바와 같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세대 교체에 따라서 사회의 주류가 된 계층이 자기들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주도하는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적 주류가 된 세대는 자연스레 그들의 경험 속에 녹아든 자기들의 정체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그것이 2008년 광우병사건 이후 10년에 걸친, 보수의 붕괴를 이끌게 되는 이들의 도

전이었고, 이제 그것이 실현되었다.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10년전 촛불의 추억으로의 회귀이며, 그들 세대가 젊었을 때인 80년대에 형성된 사유로의 복귀이고, 80년대 사유의 공동체가 오늘의 현실에서 자신의 사유를 구현하려는 목적의 방향성을 가르킨다. 이 세대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현실화 작업이 적폐청산이다.

정치의 세계 - 꿈과 이상의 세계

영화 택시운전사를 비롯하여 80년대를 조명하는 영화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사회 주류가 된 기성세대의 경험에 호소하는 복고풍 영화의 유행이다. 계속하여 영화는 80년대의 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조명하고, 친일파가 득세하던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을 다루며, 조선 시대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과 자본의 근본적인 대립구도에 기초한 노동의 해방을 외친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사회의 주류가 된 세대가 과거의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세계관과 현실관에 기초해 있으며, 이러한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지향하는데 그러한 이상의 현실화는 정치다.

정치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고 꿈과 이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세계다.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화 작업은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활동이며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과제에 방향성 및 수단의 당부에 대해서 신앙의 입장에서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도시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제에 대해서 신앙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신앙

은 자신이 속한 곳과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전제로 하여서 살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앙이 언제나 공동체의 이상과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앙이 세상에서 존속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수단이다. 모두의 정치적 꿈과 이상에 대해서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단일한 방향성을 신앙이 제시해 주지는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꿈과 이상의 추구가 힘을 얻는 것은 그것이 제공하는 자기 정당성이다. 곧 그것을 추구함이 선함의 실천이며,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에 바탕을 둔다. 선과 악이 해결되는 궁극적인 이상향이 정치의 목표로 제시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어떤 정치체제도, 어떤 정치적 운동도 선과 악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수단일 수 없다. 기독교신앙은 그러한 정치적 꿈과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원죄와 구속의 필요성 및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기독교신앙은 인간이 유토피아를 세울 수 없으며, 그것이 기독교신앙의 본래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가르친다.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인간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 인간은 구속 받아야 할 존재이다.

바벨탑의 교훈이 가르치듯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는 섭리를 이야기한다. 꿈과 희망이라는 이미지의 세계인 정치의 세계에 대해서 신앙이 명시적으로 당부의 답변을 내려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구체적인 현실속의 구체적 인간과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가 가리우는 현실의 세계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추동력을 얻는 정치 운동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실천되기에 구체적인 현실을 가린다는 위험이 항상 따른다. 정치는 힘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서 보편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적폐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단지 과거의 특정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구체적인 강령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의한 이익의 충돌이 혼재되어 있을 때에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할 때에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비난되는 일방의 기준에 의한다는 잘못을 피할 수 있고, 단순히 정치적 반대편을 지목하여 말살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단순화시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신앙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이 신앙이고, 착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의무인데, 하나님은 선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은 선악의 구분을 가리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삶을 추구하기에 남을 심판할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는 종교적 자기 위안은 문제다. 하나님은 죄인도 교회로 부르시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다.

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 개혁과 거대한 정치운동의 진행 과정이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들을 무시

하면서 진행되어서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다. 현실세계에서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언제나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선한 이와 악한 이가 분명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가의 어떤 개혁적인 정책도 모두의 선을 구현하는 좋은 결론만을 내린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타락한 인간 세계의 현실이 그러하다. 폴 존슨(Paul Johnson, 1928-, 작가)이 지적하였듯이 현대사는 국가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실현할 목적의 사회공학의 거대한 실험들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의 상실과 재산의 피해로 얼룩졌다. 이는 이념에 의한 정치적 실험을 추진하는 것의 잘못된 결과다. 정치적 실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의 사회적 유익이나 불리함 및 선하거나 악한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신앙의 방법과 수단

흔히 신앙은 당위이므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부여되고 상대방에게는 의무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상대방에 대한 의무의 부과가 나의 권리로 주장됨으로써 상대방에게까지 당위를 요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신앙이 항상 정치적 과제를 숙명적인 과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실행에 관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답이 나오는 문제로 논할 것은 아니다. 기독교신앙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과제에 있어서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기독교신앙이 제시하는 해답은 신앙인 각자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

한 개별적인 답변으로 제시된다. 기독교신앙은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신앙인은 구체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단체적으로 보편적인 지시를 기계적으로 부여받거나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2017년의 적폐청산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대한민국은 세대교체로 인하여 주류가 된 세대가 그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한 정치적 실천은 구체적 현실에서는 다른 편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의 꿈과 이상과의 충돌이라는 상황에 이른다. 꿈과 희망 및 이상의 충돌이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기치하에 진행되는 정치 상황은 시대의 유행이지만 언제나 유행은 지나가고 항시 시대는 변천한다. 세대는 바뀌고 새로운 세대는 다시 출현한다. 꿈과 이상의 충돌, 희망의 충돌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진 기존의 꿈과 이상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상대방과 주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하겠다.

기독교 신앙은 긴 역사를 가졌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정권보다 길다. 민족과 국가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다. 역사적 신앙은 이념적, 시간적, 공간적인 구획을 넘어선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는 여정이다.

민주주의 사상과 적폐청산



성기진 박사 (포에시스 대표)

캐나다 UBC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퀸즈대학교에서 정치철학과 과학기술학(STS)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라브리공동체에서 연구, 강의, 기독교세계관학교 기획 및 운영 등으로 봉사했다. 현재 대전에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IT 컨설팅 기업 '포에시스'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 정국과 대선이 끝나고 겨우 숨을 돌리려는 찰나, 어감부터 심상치 않은 “적폐”라는 낱말이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민국의 화두를 장악했다. 서로 적폐라고 손가락질해대는 통에 웬만한 사람이나 사회 구조는 모두 “적폐”가 되었고 청산 대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이전 정권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치워야 할 쓰레기를 많이 발견한 것은 사실인데, 치우다 보니 눈에 밝히는 먼지가 너무 많아 봄맞이 대청소가 겨울까지 이어지는 모양이다.

청산(清算)과 숙청(肅淸)은 맑을 청 자를 공유하지만, 하나는 쉼 산 자가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엄숙할 숙 자를 쓴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이 북한의 숙청과 다른 점은 최고지도자의 기분이 아니라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사 의도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있을지언정 수사 대상이 실제로 나쁜 짓을 했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국민은 많지 않다. 프랑스의 리슐리외 추기경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도 여섯 줄의 글만 가져오면 사형에 처할 죄목을 찾는 데 충분하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하물며 썩을 대로 썩은 우리 정치권에서 누구를 수사한들 먼지나지 않을 리가 없다.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더 많

은 죄를 짓는 사람, 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정치보복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김영삼 정부는 사정(司正)이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했고,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데 열을 올렸으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깃발을 걸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을 뒤쫓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어온 일이다. 5~10년 후에는 또 누군가가 문재인 정부의 꼬투리를 잡으려 할 것이 뻔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을 바꾸려는 정당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감정적 어필에 휩쓸리기 쉬운 이때,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곤 하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근대 정치사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기독교 세계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종교개혁의 유산

일반 대중 또는 대표자들의 참여와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소크라테스 시절의 그리스나 한국의 고대 부족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견제와 균형,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하는 근대의 민주주의는 1215년 영국의 귀족들이 왕의 독단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규정한 <마그나 카르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유럽의 몇몇 나라에 실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인

17~18세기이다. 하나의 종교만을 따르던 세상에서 왕이나 성직자의 말에 아무도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지만,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고 나니 서로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 사이에 비폭력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결로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은 아니다. 혁명과 내전으로 얼룩진 시대에 탄생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어느 한 쪽이 독주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더 컸다. 삼권분립을 확립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대립하게 했고,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재신임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선거를 자주 하기도 무척 어렵던 시절에 임기 제한을 요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선거는 어떤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나 집단을 선택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 권한을 회수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이다. 과거에도 투표로 왕을 옹립한 사례는 있었으나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신하들의 재신임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절대왕정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영국의 정당 정치 역시 1688년 토리당의 지지를 받던 제임스 2세를 휘그당이 폐위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도 체감했듯이, 이것이 매우 파격적인 발상이라는 데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폐위된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신자였다. 명예혁명 이후 휘그당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를 선언하여 다시는 가톨릭이 영국의 왕위를 넘볼 수 없도록

록 만들었다. 이 때 휘그당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잉글랜드 철학자)이다.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는 오직 국민의 동의를 통해서만 권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한 번 얻은 권력도 오남용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 30여년 전 사회계약론을 처음 제시한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잉글랜드 철학자)와 달리, 로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로크의 정치철학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인간의 타락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허용된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순간순간 자신을 살피고, 죄라는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과감히 도려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할 뿐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인간의 죄성과 끊임없는 성화(聖化)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며,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박차고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경험과도 잇닿아 있는 주장이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듯이, 혁명 이후의 영국에도 휘그당의 독재가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왕도, 종교 지도자도, 심지어 쿠데타를 준비하는 자신들도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다음 선거에서 얼마든지 패배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본질을 떠난 민주주의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 민주주의는 미국과 프랑스를 거쳐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재국가마저도 공식 명칭에 뻔뻔하게 민주주의라는 글자를 새겨넣을 만큼 모든 나라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배경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현대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견제와 낙선의 위협으로 인간의 죄성을 가능한 묶어 둔다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 낭만화되고 이상화되어 가고 있다.

C.B. 맥퍼슨(C.B. Macpherson, 1911-1987, 캐나다 정치학자)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들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초창기의 “보호적 민주주의”는 19세기의 경제 발전과 문화 융성에 힘입어 국민 각자의 자기 계발과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는 “발전적 민주주의”에 길을 내주었고, 20세기가 되자 선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여러 이익집단들이 번갈아서 권력을 적당히 나눠갖는 “균형적 민주주의”로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첨예한 견제는 사라지고 산술적 균형만 남은 것이다. 맥퍼슨은 1970년대의 시민운동과 함께 대안으로 떠오른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 희망을 걸었지만, 자신과 타인 모두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념만 옳다고 주장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민주주의 실천에 앞장서는 운동가 중 많은 분들은 훌륭한 목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무척 낭만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경제 구조를 왜곡하고 비리를 저지르며 환경을 파괴하는 “그 누군가”만 사라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는 한편 사람에 대한 애정과 희망이 묻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할 준비가 이미 잘 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타락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더러운 세상, 이론을 정립하는 학자 자신마저도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많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며 절박한 타협안이었다.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죄 많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그 이기심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치인들 사이에 경쟁을 불임으로써 더 큰 선을 이루려 한 덕분이다. 이것을 잊고 자기계발이나 경제 발전 등 민주주의의 부산물에만 관심을 갖거나, 선거나 참여 등의 절차를 우상화한다면 형식적인 투표, 형식적인 법치가 다수의 횡포, 가진 자의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자발적 협력을 낭만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도 마찬가지이다. 정교분리를 중시하는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 미국 정치철학자)의 자유주의 이론과 현대의 급격한 세속화에 영향을 받은 숙의민주주의의 주류 이론은 참여자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무척 중시하고, 합의를 이룰 수 없거나 공론화하기 불편한 주제는 아예 민주적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단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이유만으로 낙태나 안락사 등 그리스도인들이 중시하는 이슈들에 국가가 개입하기를 피하는 결과를 낳고, 더 나아가 본지 12월호에서 다루었던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조차 꺼리는 최근 미국의 트렌드와도 발을 맞추고 있다. 논리적 분석이 곤란한 명제는 논의하기조차 거부하던 20세기 초의 분석철학이 간판만 바꾸어 다시 나타난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은 왜일까? 인간의 이성을 맹신하던 철학자들이 인간의 선함 역시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불편한 민주주의

위에서 보았듯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는 절차나 다수결의 법칙 따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의 통치를 그나마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였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적법절차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려면 특정 진영의 논리나 특정인에 대한 감정에 휘말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또는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언가나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빠지는 유혹이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집단의 중심이 되는 신념이나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나 지적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합리적 비판이 아닌 인격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핑계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사람의 이런 연약함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김영삼 정부가 사정에 열을 올리던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비리를 파헤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문제삼지 않았기에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범법행위를 스스로 문제삼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렇게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을 것 아닌가?) 인간은 죄가 많고 이기적이기에, 기득권층의 악행은 그 사람이 기득권을 빼앗긴 후에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한 수사과 판결은 정치보복의 모양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사하는 사람들도 죄인의 본성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명분과 정치적 실리와 사적인 보복 심리가 뒤섞여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이나 하는 논쟁은 소모적이다. 인간의 추악함을 기억한다면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으나, 범죄 의혹이 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피해자에 대한 애뜻함이 한 경찰관의 수사 열의에 도움을 줄 수 있듯이, 경쟁자에 대한 보복 심리 역시 누군가는 해야 할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추한 본성마저 변화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러한 발상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다.

종교개혁 정신의 영향을 받아 확립된 삼권분립이라든지 적법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은 권력을 가진 자가 함부로 행

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리석음이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법안을 날림 처리하거나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국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면 꼭 탈이 나지 않던가? 민주주의는 선거날 30분만 투자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기계도 아니고, 가장 무난하고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속의민주주의자들을 만족시킬 만큼 차분하고 잘 정돈된 시스템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일부러 요란하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설계된 시스템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지를 끊임없이 재확인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종종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며 거리에서는 시위가, 법원에서는 재판이, 언론에서는 각종 추측성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편으론 무척 지치는 일이지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사회의 뇌리에 단단히 각인시키려면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불편이기도 하다. 사적인 자기계발이나 형식적인 선거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난리법석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정권이 바뀐 직후뿐 아니라 언제나 해야 할 일인데, 한동안 이를 소홀히 했으니 결국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적폐청산의 총대를 메고 있는 현 정부나 대통령 개인을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우상화하는 열성팬들 역시 경계해야 한다. 자기들의 욕심과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들의 적폐를 파헤치는 데만 집중한다면 다음 정부에 의해 똑같이 당할 것이

기 때문이다. “채도 나쁜 짓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유치한 핑계가 통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재 차례다. 인간의 죄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항상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면 번갈아서라도 상대방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연약한 인간의 욕심과 보복 심리마저 더 큰 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놀라운 지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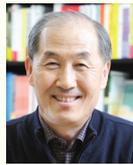
앗시리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바빌론을 통해 유다와 앗시리아를, 페르시아를 통해 바빌론을, 그리스를 통해 페르시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게 먼저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한 나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셨고 쓸모를 다한 후에는 헌신짝처럼 버리셨다. 한 나라의 역사는 한 정치인이나 정당보다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보다 크다. 그분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겸손과 회개, 끊임없는 자정 노력뿐이다.

결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은 더 선호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권력을 얻게 되면 반갑고, 수세에 몰리게 되면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위협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대변하는 계파의 흥망성쇠를 더욱 다급한 문제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이슈를 이념 투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잠깐의 득실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공기청정기 필터를 한두 번 거치는 것으로 미세먼지가 모두 걸러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필터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몇 시간 후에는 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물론 필터도 종종 갈아주어야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꾸만 실내로 유입되는 새 먼지도 열심히 닦아내야 한다.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선진국의 민주주의도 수백 년간 이런 과정을 거치며 깨끗해진 결과일 뿐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도 그 과정을 똑같이 거치며 연단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수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적폐청산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상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과(B.A.), 신학대학원(M.Div.), 미국 Westminster 신학교(Th.M.)에서 조직신학,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교(Th.D.)에서 기독교윤리학을 공부했으며,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기독교윤리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동성애/동성혼반 대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 등으로 섬기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른 바 “적폐청산” 작업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 작업의 윤리적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첫째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항목들이 정확한 사실들에 근거한 것들인가? 이 항목들이 정확한 사실들에 근거한 것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라면 적폐청산의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아 올 것이다. 둘째로,

적폐청산 작업은 결국 법적인 공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법적 공방이 공정한 과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념적 정치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

두 개의 질문들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 곧,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에 대한 필자의 답변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 편향성으로부터



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념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핵심 요직들에 주체사상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주체사상파는 아니라 할지라도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체사상파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인사들이 그 후에 어느 정도나 사고의 전환을 이루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하나는 성(性)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뚜렷하고 고집스러운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보고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양성개념을 배제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치철학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정치철학의 기반 위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

화하는 것을 선거공약과 당론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곱 차례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무산되자 오기를 부리듯이 아예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온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초법적 발상을 통하여 이른 바 “동성애 독재”를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한국의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해 온 우리 법 연구회 인사들을 임명하여 사법부 장악을 시도했다. 그 이외에도 양성평등을 성(gender)평등으로 대체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집요한 시도, 차별금지법제정 시도,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려는 시도들이 집

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권보도준칙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일체의 건설한 비판적 의견의 개진을 차단함으로써 광주 금남로와 대전에서 수만 명이 모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한 집회 소식도 일체 보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3000명이 넘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반대성명을 낸 사상 초유의 사건도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언론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운동에 대한 사실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이 운동을 폄훼하고 비꼬는 기사들만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 주는 이 같은 뚜렷한 이념적 편향성이 적폐청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적폐항목들의 사실성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적폐항목들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폐 항목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의 여부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전혀 사전에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견된 비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촉발되지만 한 것이 사실인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사례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확실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 올만한 것이라는 검찰의 견해는 사실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것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었는가? 그동안 국정원을 비롯한 대공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온 것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시도가 정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 위기 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첨예한 첩보전을 전개

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북한이 파견한 간첩들이 상당 수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남과간첩을 검거하려는 시도들조차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문제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상에 열거한 일단의 질문들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세가지 조건

그러면 적폐청산이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필자는 세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특정한 이념적인 정치철학과 부합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거나 인적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얼마 전 검찰총장이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청와대는 적폐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면서 우리 사회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도 적폐청산이며, 이 적폐청산 작업은 임기 내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예들려서 검찰총장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좌파적 정치철학의 기반 위에 집권한 현 정부가 우파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구조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실 어떤 정당이든 정권을 잡은 후에 자기 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정권을 잡는 것을 허용해 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조가 우파적인 정치철학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고 해

적폐란 윤리적 차원에서
통치자의 왜곡되고
부패한 도덕성을 반영하는 정책이나 통치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공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의의 원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통치행위이다.

서 적폐라고 볼 수는 없다. 우파의 정책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좌파의 정책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파의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치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책이 공동체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분배의 정의를 약화시켜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과 사회의 창의적인 활력과 효율을 증진시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 공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좌파의 정책은 분배의 정의를 중시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등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정직성과 노동윤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전체를 한층 더 빈곤한 상태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것도 역사적 현실이다.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정당은 일정한

정치철학을 정당의 이념으로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 여와 야, 좌와 우를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돌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의식적으로라도 자기 정당의 이념을 넘어서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한 정당의 정치철학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국민들을 심각한 이념적 분열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념의 허구성 곧, 유토피아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념이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현실을 교정하는 비판적 규범 정도로 기능하지 않고 현실화를 위한 실제 목표로 설정되면 사회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기 당의 정치철학의 근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복리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고 필요할 때는 자기 당의 정치철학을 교정하기도 하고 반대당의 정치철학의 원리도 받아들이기도 하는 등의 타협과 포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적폐의 대상에 대한 답변

그러면 진정한 적폐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필자는 다시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하고자 한다. 하나는 개인 윤리적 차원을 전제한 것으로서 통치자의 왜곡되고 부패한 도덕성을 반영하는 정책이나 통치행위가 적폐임을 말하고자 하며, 다른 하나는 사회 윤리적 차원을 전제한 것으로서 공적 사회와 사적 사회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적 이성 곧 정의의 원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통치행위가 적폐임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공직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규범적 원리들에 대한 이해와 내적인 덕성의 훈련을 갖춘 상태에

서 공직 수행에 임해야 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며, 모든 윤리적 실천은 마음으로 부터 나온다는 고전적인 기독교윤리학의 명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공직자의 공직수행에는 그가 견지하고 있는 규범적인 원리들과 이 원리들을 실천에 옮기는 내적인 덕의 자질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공직자가 상대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효율주의, 유물론적 윤리 등과 같은 왜곡된 윤리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내적인 욕구를 통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그의 공직수행을 비집고 들어올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피해는 막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규범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과 이기적인 대중들의 조작된 다수의 의지를 따를 경우에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은 건강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장 취약한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생명윤리의 현주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초기의 배아를 세포덩어리로 보는 유물론윤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은 임신부의 복리를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공직자가 왜곡된 성윤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성애나 동성혼과 같은 왜곡된 성적 관행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이 또한 우리 사회의 성윤리의 현주소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마음의 탐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공금을 개인적인 명의로 착복하는 온갖 유형의 재정 비리와 부패관행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공직자들은 공적 사회와 사적 사회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과 각 사회에 적용되는 규범적

인 행동원리들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사회 전체는 유기적인 생물체인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통전적 전체성을 지닌다. 한 국가가 유기적인 통전적 전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사회도 유기적인 통전적 전체성을 지니고 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능적인 면에서 다양한 특수한 영역들로서 분화되어 있다. 개혁주의의 전통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가 국가와 사회의 영역을 구분하고, 사회의 각각의 영역들을 종교, 교육, 기업, 가정, 문화 등의 영역들로 다시 구분하여 파악하는 영역주권론(sphere sovereignty)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파악하고자 했으며, 존 롤즈(John Rawls)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등과 같은 현대 사회계약론 철학에서는 공적 사회(the public society)와 사적 사회(the private society)로 구별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적 사회와 사적 사회의 구분이다.

롤즈에 따르면 공적 사회는 기본적 사회구조(the basic social structure)로서 정치경제적 구조를 의미하며, 국가와 시장에 여기에 속한다. 기타 다른 사회적 기관들은 사적 사회로 구분된다. 롤즈는 공적 사회는 이른 바 공적 이성(the public reason)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도예베르트는 공법적 구조적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롤즈가 말하는 공적 이성이란 곧 정의의 원리를 말하며, 정의의 원리는 바로 공정성의 원리를 의미한다. 도예베르트가 말하는 공법적 구조적 원리도 정의의 원리에 다

름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적폐청산은 결국 법적 공방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이 작업은 결국 공적 사회의 일이자 국가의 일이며, 좀 더 좁게 말하자면 사법부의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롤즈와 도예베르트가 공적 이성과 공법적 구조적 원리를 강조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롤즈는 차별의 원리를 말하는 경제정의의 원리에서는 사회의 한계계층의 생존권 보존을 위하여 특별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정치적 정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극히 강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롤즈는 정의의 원리를 말하는 첫 단계에서 무지의 막(the veil of ignorance) 개념을 사용하는데, 무지의 막이란 공동의 논의의 현장에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의의 당사자들이 처한 특수한 입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통분모에만 철저히 근거하여 원리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어떤 특수한 이념들은 철저히 배제된다. 무지의 막을 친 다음에 합의한 원리들이 바로 순수한 과정적 정의, 완전한 과정적 정의, 불완전한 과정적 정의인데, 이 세 가지 정의들은 의미의 차이들이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떤 특수한 사정이나 이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도예베르트가 공법적 구조적 원리를 강조할 때도 국가권력이 인종주의와 권력주의 그리고 경제주의의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물론 롤즈나 도예베르트의 국가론이 종교나 철학, 윤리사상 등이 공적 영역에서 차지하고 또 차지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사회를 이원적 구조 속으로 빠뜨린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적 영

역의 운영이 사회 안의 특정한 정치집단의 이념들에 의하여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깊다.

공적 영역 안에서 진행되는 법적 공방을 의미하는 적폐청산은 특정한 정치집단의 이념에 휘둘러거나 그 이념의 실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법적인 절차적 공정성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한다. 촛불 집회로 묘사되는 민중의 의지가 “천심은 민심”이라는 금언에 충실하게 천심이 담긴 민심을 반영할 때도 있으나 제한된 정보전달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민중들 다수의 의지는 정치적이고 과학적인 엘리트들에 의하여 조작된 의지를 반영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사회가 다수의 민중들의 의지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집권여당의 관계자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선다든지 특정한 집단이 여론몰이를 통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근거 없이 비판하고 나서는 관행은 공적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폐청산은 반드시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직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왜곡된 윤리적인 규범적인 원리들이나 공직자의 부패한 자질이 반영되어 있을 때, 공직자들이 공정한 법적 절차를 깨뜨렸을 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집단의 이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관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학생회(IF)의 총무 및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현 정부가 적폐 청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 노력이 정치 개혁의 일환이냐 아니면 가장된 정치 보복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해석에 있어서이다. 그리스도인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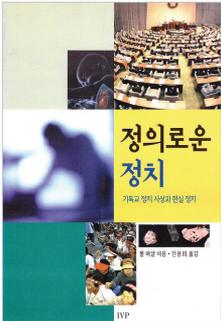
- (i)적폐 청산: 옳다
- (ii)정치 개혁: 옳다
- (iii)정치 보복: 그르다

다만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조치가 개혁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보복과 연관이 되는지는, 원칙에 비추어서 알 수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 별 조사로 판명이 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 <책갈피>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이나 탐색¹[이것은 너무 범위가 좁은 탐구 작업이고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을 목표로 하기보다 좀더 일반적인 주제[정치에 대한 전망과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입문서**이다.

1. 책의 형태가 아니기도 하고 또 14년 전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라 별도로 예시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분석이나 탐색의 좋은 예로서, 백종국, “한국 내 보혁 갈등의 성격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 참여 정부의 등장을 중심으로 —,” 『갈등, 그 화해의 길』 제 20회 기독교문학회 자료집 (2003. 11. 8.), pp. 20-31을 참조하라.



폴 마셜 지음, 진용희 옮김, 「정의로운 정치: 기독교 정치 사상과 현실 정치」(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폴 마셜(Paul Marshall)은 “종교의 자유”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정치학자로서 과거 기독교 학문 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ICS) 및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를 포함한 여러 교육 기관과 연구소에서 가르치고 연구했다. 2017년부터는 베일러 대학교의 종교학 연구소에서 석좌 교수로 일하고 있다.

상기 책자는 원 제목이 *Just Politics: A Christian Framework for Getting Behind the Issues* (1997년 ICS 간행)로 되어 있어,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는 일에만 착념하기보다 정치적 행동의 목적과 이유를 담을 수 있는 기독교적 관점의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저자 스스로가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말한다. 첫째, 정치의 중심에는 정의가 있다는 것이요, 둘째, 정치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서론: 구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 제2장 창조와 인간의 소명
- 제3장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책임
- 제4장 민주주의에 대한 성경적 관점

- 제5장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
- 제6장 낙태와 도덕적 문제들
- 제7장 교회, 국가, 종교의 자유
- 제8장 경제와 복지 국가
- 제9장 국제 정치와 인권
- 제10장 기독교적 활동을 위한 지침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한국인의 저술이지만 각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서구의 정치 철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서울: 한길사, 2010)

저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가치와 윤리센터> 소장과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정치이론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책자에서 저자는 정치 철학 전공자가 아니면 익숙하지 않을 다섯 명의 학자들 — 필립 페티(Philip Pettit), 데이빗 밀러(David Miller), 샹탈 무페(Chantal Mouffe), 에이미 갓만(Amy Gutmann), 마사 너스바움(Martha Nussbaum) — 과의 질의 응답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한 명의 인물당 학자의 배경과 이론 소개, 질의 응답, 한국 상황에의 적용 등 세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필자가 이 책자를 언급하는 것은 특히 세 번째 학자 무페에 대한 제목 때문이다.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쟁투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는 표제가 시사하듯, 이 글이 현금 우리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어떤 통찰력이나 힌트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예상은 부분적으로 들어맞은 것 같다. 첫째, 무폐의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은 한국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그녀가 정치 사회적 갈등을 이론적·전략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녀의 설명이 오늘날 우리의 처지에 대해 높은 정도의 적실성을 보유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필자는 그리스도인과 정치 활동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함께 등장시키는 책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할 세 권 모두 “발표-응수” 식의 틀을 갖추고 있는데, 한 명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면 나머지 입장의 대표자들이 그 발표 내용에 반응을 하는 식이다. **첫째 권은 영국의 실정에 대한 것이다.**



Jonathan Chaplin, ed.,
Politics and the Parties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92)

이 책자는 영국 IVP가 기획한 “그리스도인끼리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When Christians Disagree) 시리즈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은 전쟁

과 평화주의, 여성의 역할, 창조-진화론, 기적과 치유, 교회 연합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의 한 권으로 선을 보였다. 우선 책자의 초두에는 19가지의 테제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테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 범주 (1-6): 정치 및 정부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테제

테제 1: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인간 사회에는 정치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 (삿 2:16; 잠 8:15-16; 요 19:11; 행 19:35-40; 롬 12:18-13:7; 딤후 2:1-2; 벧전 2:13:14).

테제 2: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정부 형태만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성격이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성경적 힌트(신 17:14-20; 민 1:16; 26:9; 삼하 5:3 등)를 주셨다.

테제 3: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롭고 공정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신 5:16-20; 겔 18:5-9; 롬 13:7-8; 벧전 1:14-16).

테제 4: 교회의 임무 가운데 한 가지는 성경적 교훈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성 있는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테제 5: 기독교 정당의 주된 기능은 일관성 있는 일련의 정치적 확신을 옹호하고 실현하도록 힘쓰는 데 있다.

테제 6: 성경에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잡는 데 필요한 어떤 특정한 규정이나 훈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반적인 윤리적 가르침으로 보아 하나님의 항구적인 뜻으로 여겨지는 어떤 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범주 (7-12): 경제 생활 및 복지 제도의 마련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테제

(테제 6-11은 경제 이슈에 관한 내용이므로 생

략한다.)

테제 12: 정치 지도자들의 권세는 매우 신중하게 그들 고유의 권리와 의무에 국한되어야 한다 (삼상 10:25; 신 17:14-20; 롬 13:3-4).

셋째 범주 (13-19): 둘째 범주의 내용이 현재의 상황에 주는 의미에 대한 테제

(정치 상황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으므로 내용은 소개하지 않는다.)

위에서 소개한 일곱 가지 테제(1-6, 12)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지만, 나머지 테제(7-11, 13-19)와 관련해서는 여러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자는 세 가지 하부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 준다.

제1부 기독교적 입장/견지라는 것이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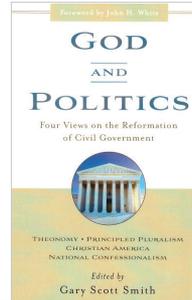
제2부 기독교와 정당 결성

제3부 외부인의 시각: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독립적 평가

이 책의 내용이 영국의 상황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지리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두 권은 미국의 상황에서 쓰인 것이다. 첫째 권은 개혁과 신학 전통 내에 존재하는 바 정치에 관한 네 가지 입장이 무엇인지 예시한다.

1987년 일단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공민(公民) 정부 체제(civil government)에 미치는 의미를 논하고자 하여 그 해 6월 2-3일에 펜실바니아 주의 제네바 대학에서 “공민적 정부에 대한 성경의 역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책은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개정한



Gary Scott Smith, ed., *God and Politics: Four Views on the Reformation of Civil Government*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9)

것이다.

각 입장의 명칭과 주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률론적 입장(Theonomic position): 구약의 도덕적·시민적 율법 조항은 신약에서 폐기가 명시된 것을 빼놓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의 경영에 적용된다고 본다. 이 입장은 기독교 재건주의(Christian reconstructionism)라고도 불린다.

2. 원칙론적 복수주의 입장(principled pluralism):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실체가 각각 독자적 주권을 가지되 다른 실체와의 조화 가운데 함께 작동하도록 정하셨다고 주장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 사상이 이 입장을 반영한다.

3. 크리스천 미국 입장(Christian American): 이 입장은 상기한 두 가지보다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 단지 미국은 기독교적 전통/유산(Christian heritage)을 물려받은 나라이므로 법적·정치적 체제 또한 유대-기독교적 정신으로 쇄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국가적 고백 정책 입장(national confession-alism): 오늘날의 모든 국가들 —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 은 그들의 공적 문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정의를 진작시키는 정치 체제를 고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마 28:18에 언급된 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께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번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또 이것이 한국의 실정에도 부합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미국의 개혁과 전통 내에서는 상기한 입장들이 함께 주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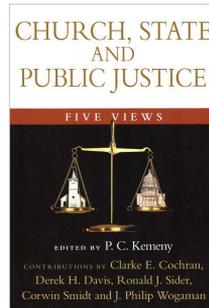
미국의 상황에서 논의가 된 둘째 책은 **기독교 전반의 신학 전통과 맞물려 형성된 다섯 가지 입장**을 선보인다.

이 책자에서는 각 신학 전통을 대표하는 이들이 교회와 국가(및 공적 정의)의 관계를 논한다. 그들이 대표하는 신학 전통과 그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의 삶: 가톨릭적 전망 (Life on the Border: A Catholic Perspective):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결코 획일적 단일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의해 더욱 복잡히 꼬여 있다. 주창자는 이 글에서 주류 가톨릭의 입장을 그것이 나타내는 긴장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2. 고전적 분리의 전망 (The Classical Separation Perspective): 이 입장은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의 종교적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서 침례교회의 전통과 잘 맞는다. 그러나 이 입장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종교와 정치가 전폭적으로 분리되어야 함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3. 원칙론적 복수주의의 전망 (The Principled Pluralist Perspective): 이 견해는 위에서 나왔듯 개혁파적 신앙 전통에 뿌리박은 입장이다. 원칙론적 복수주의는 국가가 삶의 영역 가운데 합당한 권한



P. C. Kemeny, ed., *Church, State and Public Justice: Five Views*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2007)

을 가진 사회 구조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회 구조들 — 가정, 교회, 학교 등 — 역시 고유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4. 아나뱃티스트의 전망 (The Anabaptist Perspective): 이 입장은 16세기 아나뱃티스트의 전통을 좇되 평화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평화주의는 비폭력적 형태의 권세나 정의 수립의 메커니즘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사회적 정의의 전망 (The Social Justice Perspective): 이 입장은 개신교 내 주류 교단들 — 세계교회협의회(WCC)나 전국교회협의회(NCC)에 속한 교단들 — 이 취하는 바로서, 교회는 공공 정책 가운데 또 공공 정책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창자는 감리교도이지만 그의 설명은 개신교도들 대부분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집자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루터파의 전망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폴 마샬의 말을 반복하거나와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정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형성이다. 이번에 소개된 책자의 대부분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과 적폐청산



김철홍 교수 (장신대 교수, 신약성서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과 유니온신학교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에서 S.T.M in Ecumenics을, 미국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다.

2012년 12월 18일에 개봉된 영화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은 한 달 만에 누적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고 최종 590만 명이 관람한, 흥행에 크게 성공한 뮤지컬 영화다. 영화가 개봉된 뒤 심지어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85년)의 원작 소설 번역본도 15만부가 팔렸나갔다고 한다. 2013년 1월 12일 경향신문 기사(박은하 기자)에 따르면 이 영화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작품에 등장하는 ‘실패한 혁명’과 ‘가난한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이 현재 한국의 사회상과 맞물리며 공감을 자아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같은 해 1월 10일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최갑수 교수

(서울대 서양사학과)는 영화가 묘사하는 1832년 6월 파리 반란을 언급하면서 “‘레 미제라블’은 혁명을 했는데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완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다. … 우리나라는 4·19 혁명과 1980년 서울의 봄,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 등을 통해 일정한 수준에서 민주화가 됐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돼 왔다”고 말한다. 즉, 관객들이 이 영화에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오늘 날 한국의 현실에 “빚대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영화평이 말하는 ‘지점’은 다름 아닌 ‘정치적’ 지점이란 것은 자명하다.

인터넷 상에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관람평을 찾아 읽어보면 일반 관객들 역시 압도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자반응비평(reader's response criticism)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관객의 몫이고 권리라는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원저자인 빅토르 위고가 말하려고 한 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장봉기’ ‘혁명’ 등의 정치적 주제 주위만 맴돌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문학적 빈곤과 지나친 정치적 경도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영화의 내용이 지극히 기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영화 읽기가 인터넷 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역시 충격적이다. 레 미제라블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짧은 글에서 그 모든 주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빅토르 위고가 던지는 ‘법치주의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질문을 되새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현 정권의 적폐청산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장 발장(Jean Valjean)은 평범한 노동자로서, 어느 날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투옥된다. 4차례의 탈옥 시도 때문에 총 19년의 징역을 산 뒤 가석방된 그는 미리엘 신부의 도움으로 살던 중 성당의 은그릇을 훔쳐 도망가다가 경찰에 체포된다. 하지만 미리엘 신부는 경찰에게 장 발장이 갖고 있는 은그릇은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은촛대까지 덤으로 주어 그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 그 후 장 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의 사업가로 변신한다.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변신한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장(市長)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긴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보낸 19년의 인생은 빵 한 조각을 훔친 그의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엄격한 처벌이 전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미리엘 신부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총’을 받는 경험이었다. 바울의 다메섹 회심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용서의 경험을 통해 장 발장은 마들렌이란 전혀 다른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 기간에 자본가로 살아가면서도 마들렌은 재물을 향한 동물적 욕망에 사로잡혀 무자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는 원시적 자본축적을 하는 자본가의 모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까지 팔아야만 했던 판틴이라는 이름의 여성 노동자를 도우려고 하고,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자신의 딸로 키우는, ‘은총 안에서’ 중생(重生)하여 살아가는 기독교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 발장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을 상징한다면, 자베르는 그와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자베르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반드시 그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찰이다. 그의 존재 그 자체가 법치주의 기초다. 그는 경찰로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장 발장을 다시 체포하려고 한다. 그에게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 장발장을 용서해 준 미리엘 신부

출처: 톰 후퍼의 영화 <레미제라블> (2012)

장 발장은 단지 죄수번호 24601일 뿐이다. 영화에서 자베르가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 '자베르의 독백'(Javert's Soliloquy)의 아래와 같은 노랫말은 이 점을 극적으로 잘 보여준다.

I am the law and the law is not mocked
나는 곧 법이고, 법을 우습게보면 안 되지

I'll spit his pity right back in his face
장 발장의 자비를 그의 얼굴에 다시 침 뱉어 돌려줄 거야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we share!
이 땅에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

It is either Valjean or Javert!
장 발장이냐 아니면 자베르냐, 둘 중 하나만 있을 뿐!

그런데 20년간 장 발장을 추적하던 자베르는 아 이러니 하게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 모범경찰 자베르는 왜 자살하게 되었을까? 장 발

장을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내지 못한 좌절감과 분노 때문에 그가 자살한 것은 아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장 발장이 보여준 선한 삶의 모습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장 발장이 자신을 죽이지 않음으로, 그가 지금까지 믿어온 '종교'인 율법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의 원칙, 즉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원칙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같은 노래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세느강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

Is he from heaven or from hell?
장발장 그는 하늘에서 온 걸까 아니면 지옥에서 온 걸까?

And does he know
그는 알고 있을까

That granting me my life today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내 생명을 주었지만

This man has killed me even so



내가 알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어

평생 징발장을 쫓던 경찰관 자베르는 자신을 살려준 징발장을 통해 갈등하다 자살을 한다.

출처: 톰 후퍼의 영화 <레미제라블> (2012)

이 사람은 또한 나를 죽였어

... I'll escape now from that world

나는 저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거야

From the world of Jean Valjean

징발장의 세상으로부터

There is no where I can turn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없어

There is no way to go on!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자베르의 죽음은 결코 법이 인간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죄용서의 은총만이 죄인을 인간다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독교는 법 혹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이나 율법은 '강제'이기 때문이다. 강제와 강요는 인간

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인간은 변화시키는 것은 내면에서어나오는 인간의 자발성이다. 인간의 자발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은 뒤부터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간은 능동적으로 긴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 종교는 자발적,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한 삶을 향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자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하고, 율법의 강제와 강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노예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빅토르 위고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을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질문이 된다: '과연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물론 그의 대답은 '복음'이다. 이 메시지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즉 '율법의 행위가 인간을 의롭게 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죄용서의 은총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과 많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징발장과 자베르, 이 두 사람

의 삶을 다른 여정으로 인도했을까? 장 발장 유형의 인간과 자베르 유형의 인간 사이에 있는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自己義, self-righteousness)다. 장 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인식한다. 그의 인생 자체가 도망자의 삶이고 죄의 그늘 안에 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인간과 하나님에게 이중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빗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베르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법과 정의의 편에서 있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베르는 법을 집행하는 주체이므로 자신을 '정의의 일꾼'으로 볼 뿐, 절대로 자신을 장 발장과 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자베르는 자기의(self-righteousness)로 똥똥 뭉친 사람이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장 발장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베르가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즉 장 발장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법에 의해 처벌받게 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믿는 자베르의 이런 잘못된 신념은 그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다메섹 회심 이전의 자신을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묘사한다. 그도 역시 자베르처럼 자기의(自己義)로 똥똥 뭉쳐져 있는 사람이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 선 바울은 자베르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로 보

여주심으로(갈 1:16) 자신이 의인(義人)이 아니라 죄인(罪人)임을 깨닫게 되었다(고전 15:9-10). 바울이 자기의(自己義)를 버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自己義)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장 발장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인간이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런 장 발장 같은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결함투성이의 죄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과 남을 모두 죄인으로 인식할 때 인간은 비로소 남을 정죄하고(to condemn) 자신을 심판자(judge)로 착각하는 정신병에서 자유롭게 된다. 만약 자베르가 자기의(自己義)의 화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自己義)는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독배(毒杯)다.

현 정권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은 한 마디로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이 지난 정권 하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에 의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비록 율법과 법에 의한 처벌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속사회에서 법

치주의가 무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과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늦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맞다.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인은 대속적 형벌 (penal substitution)을 요구하지도 않고, 친진난만 하게 무조건적 용서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기독교인은 오히려 세속사회에서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질 때에야 사면과 용서가 더 가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현재의 적폐청산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는 현정부와 그 지지 세력들이 자기의(自己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죄인들의 목록을 만들어 검찰에 넘겨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때, 적폐청산위원회가 먼저 국회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뒤에 법률적 근거를 갖고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청와대 임종석 실장 명의의 공문(公文) 한 장에 근거해서 기구를 설치한 것은 국가행정체계 문란행위다. 적폐청산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법' 등 관련법 등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에는 이런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차상의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암시하는가? 현정권이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이해하는 자베르와 같은 인간형들로 뿔뿔 뭉쳐져 있고, '우리는 정의롭고, 너희는 불의하니 잔소리 말고 우리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이며, '어차피 절차상의 정의를 무시해도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 우스운 것은 검찰과 법원의 굴종적인 태도다. 적폐청산위원회가 법적으로 조사권도 없는 데도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로 넘겨서 기소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와 고발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것이다. 왜 사법부는 외부발주에 의한 범죄 조사와 고발을 받아들이고 있나? 방송국이 드라마를 만들 때 외부발주로 촬영하는 것에서 무슨 대단한 영감 (inspiration)이라도 받았다는 말인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불법적 적폐청산은 검찰과 법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집단에 불과한 위원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적폐청산은 법에 의한 정당한 처벌이 아니다. 정치적 보복이다. 절차상의 정의를 무시할 때 적폐청산은 처음부터 정의롭지 않은 것이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제5공화국 시절에 경찰서에 걸려 있던 '정의사회구현'의 간판을 기억한다. 그 때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메스꺼움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역질이 다시 느껴지는 것은 왜인가? 자기의(自己義)에 매몰되어 심판자가 되기로 자처한 한국판 자베르들의 갈증을 보면서 이들의 종말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자베르들은 과연 자기의(自己義)의 독배에 취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말 것인가?

영화에서 자베르도 장 발장도 다 죽는다. 장 발장은 딸처럼 키운 코제트가 사랑하는 연인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죽는다. 자베르의 죽음은 무가치한 자살이었다면, 장 발장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 자신이 죽기 전날 장 발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God on high

하늘에 계신 하나님

hear my prayer In my need

제가 필요할 때 제 기도를 들어 주세요

You have always been there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어요

... Bring him home

그(마리우스)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He's like the son I might have known

내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 이들은 그와 같을 겁니다.

... And I am old

저는 늙었고

And will be gone

곧 죽을 것입니다.

... If I die, let me die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저를 죽게 하시고

Let him live

그를 살려주세요

Bring him home/Bring him home/Bring him home

그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 발장의 모습이 하늘을 향해 분노를 쏟아 붓는 자베르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선택한 것이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이다.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장 발장의 삶이 오늘따라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1)



이우제 목사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서론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 계시록은 한국 교회 안에서 두 극단적인 태도로 취급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나친 결핍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과잉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 안에서 요한 계시록은 다루기를 꺼려하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목적은 성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에 있다. 이면에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도 결코 예외 일 수 없다. 요한 계시록은 철통 보완 장치와 함께 박물관 안에 보관 되어야 하는 책이 결코 아니라, 적극적으로 읽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변화 시키는 역할에 감당해야 할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계시록이 교회 안에서 마치 한 번도 그 자태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처녀림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기존 교회의 형편이 이렇다고 보니, 요한 계시록은 오히려 불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온상이 되거나, 기독교 이단들의 전용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요한 계시록에 대

요한 계시록은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어린양의 승리,
즉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교회의 승리에
대하여 다루는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기존 교회의 지나친 결핍이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 등정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요한 계시록에는 유난히도 높은 봉우리들이 많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자만은 절대 금물이다. 한 없이 겸손한 자세가 요청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한 계시록이 아예 정복이 불가능한 책은 결코 아니다.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상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요한계시록의 근간이 되는 메시지(교훈)은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 계시록이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사용되는 단골메뉴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계

시록 앞에 붙어 있는 “접근 금지”의 팻말을 떼어내고, 요한계시록의 숲속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깊은 묵상을 통하여 요한 계시록이라는 산에 올라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정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팔을 벌려 신록의 향기를 마음껏 맛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장들로 들어서기에 앞서서, 요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간략하게 계시록의 주제, 계시록의 저술의도,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시록의 읽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주제 성구는 계시록 17장 13-14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도다.” 이 성구를 통하여 계시록의 주제를 보다 세분화해 보면, 세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계시록은 싸움의 책이다. 짐승을 중심으로 한 악의 무리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린양과 싸우게 된다. 그들이 어린양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악의 세력들이 순순히 백기를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의 공격 대상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다. 12장에서 용이라는 존재가 먼저 아이(예수님)를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신다. 성경은 용의 공격을 무력화 시킨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

고 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 예수님을 삼키지 못한 용은 이제 다음 타깃으로 여인(교회)을 공격하게 된다. 그 결과로 교회는 광야로 도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6, 14절). 결국 계시록은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어린양과 교회를 향해 달려드는 공격과 그에 대한 응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투쟁의 실상은 원시 복음으로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시록의 주제는 어린양의 승리이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므로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어린양이다.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한다. 결국 요한 계시록은 십자가 사역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의 승리이다. 어린양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짐승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장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이다. 그분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의 기초가 된다.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 분에게 한편이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

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자들이 이긴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가 그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어진다. “값싼 은혜”를 조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값진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분 안에서 기록해져야만 한다.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진실을 거명한다. 교회 공동체에게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에서 악의 세력이 거짓말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교회의 표지는 진실이다. 결국 정리하면, 계시록의 중심주제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어린양의 승리와 그의 교회의 승리에 대하여 다루는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저술의도:

요한 계시록의 주제를 알았으면 이제 계시록이 어떤 저술의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시록의 저술의도는 적어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계시록은 고난 받는 공동체에게 미래의 운명을 제시하여 현재를 새롭게 재조정하기 위하여 저술되어진 책이다. 일반적으로 계시록은 미래를 다루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과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시록이 그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일로 숨게 하는 미래학에 대한 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계시록이 미래를 제시하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현재를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조

요한계시록은

암담한 현실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자,
그 내일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과 동시에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다.

장하거나, 현재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처로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일의 희망 안에서 오늘을 다시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내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말론은 미래 때문에 새로워지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계시록의 배경은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다고 할 때, 궁극적인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오늘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둘째로, 계시록은 교회로 하여금 저항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저술되었던 책이다. 현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의 골자는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만일 도미티안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황제 숭배의 상황이 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면, 현재를 재조정시킨다는 것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

로 하여금 다시금 악의 도전 앞에서 저항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결단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마지막까지 저항 혹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언제나 진정한 왕이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게 될 때, 다른 힘의 세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시록의 본격적인 계시가 시작되는 첫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서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 보좌 그 너머에 진정한 통치자가 계신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늘 보좌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악을 향하여 끝까지 항거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계시록은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저술된 책이다. 교회에 부여된 최대의 저항 행위는 무력적인 시위 같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시록의 예배에 대한 독려하는 곳곳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돌리는 찬양의 메아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를 촉구한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계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걸어나오는 것이다. 우리들이 바벨론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삶의 예배인 것이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시록 읽기의 방향성:

첫째, 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 받는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다.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고난이다. 그런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인생의 필연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계시록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말해준다. 오늘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반드시 내일은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이길 것이다. 그것을 희망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웃게 하는 책이 계시록이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로 출출 수 없는 상황에서 춤추게 하신다. 신자는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이상한 새”이다. 현실을 보면 노래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뚫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실 수 있는 그 분으로 인하여 노래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힘겨운 삶 가운데 “모조품(작통)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으로 감격하고 싶다면, 계시록을 읽어야 한다.

둘째, 계시록은 우주적 종말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주의 종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명시하는 책이다. 계시록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퍼즐을 맞추는 책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계시록이 미래에 말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미래는 미래의 발생할 사건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는 의미의 미래이다. 계시록은 일종의 그림책이지 수수께끼 책이 아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계시록 이해는 오

류에 빠지게 만든다. 6장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종말은 어린양이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이다.

셋째, 계시록은 난해하기에 평신도들에게 입산금지인 명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 책이다.

계시록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쉬운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책이 될 수도 있다. 계시록은 쉽다. 그러나 계시록은 또한 어렵다. 어떤 면에서 쉬운 책인가 하면, 계시록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명료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프이쓰레스의 주장처럼,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성 하신다”는 메시지이다. 이면에서 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는 너무 선명하다. 전체 숲은 분명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시록의 상세한 내용들은 구체화 시키고 현대와 연결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그 어떤 탁월한 신학자도 계시록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난해한 구절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부여해 준다. 일단 우리는 진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계시록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계시록 본문의 내용을 우리 모두 다 풀 수 있다는 식의 영적 오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겸허한 태도로 거대한 산 등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넷째, 계시록은 65권의 성경과 다른 차원을 언급하는 부록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이다. 계시록을

흔히 세속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거나 지구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하게 될 때, 놓치는 위험은 나머지 65권의 성경과는 성격이 다른 책으로 다루게 되는 점이다. 성경의 전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을 초림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말한다. 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의 성경 65권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다. 성경의 다른 책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면 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다. 계시록을 종말론으로만 풀어나가는 것은 반쪽자리 진리인 것이다. 계시록은 복음으로 읽고 이해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고전 15장에 나와 있다.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물론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전의 다른 책에 비해서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무게 비중”만큼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책들과는 달리, 요한 계시록만 불쑥 복음 이외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성을 깨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해석을 시도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커다란 위험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상실된 채 행해지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공상 만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점이다. 필자가 계시록을 복음으로 전제하는 것은 다른 아닌 계시록에서 기독교론이 강조되어야 함

을 역설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의 그리스도를 논하는 기독교론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도전이 되므로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면에서 계시록을 단순히 종말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론에 입각한 종말론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유 레디 투 고?” (Are you ready to go?)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영국 귀국해 여수에서 살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여보, 난 준비 다 됐어요!”

남편은 샤워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때로는 아침 잠에서 깨면서부터 “난 다 준비 했어요”라고 잠꼬대하듯 웅얼거리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제가 남편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나갈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남편과 함께 심방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 일단 남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여자들의 외출 준비는 남자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알뜰게도 자기 준비만 끝나면 ‘난 준비 다 됐어요’를 외치며 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부르릉거리는 시동 소리를 들으면 저는 더욱 다급해집니다. 전깃불을 끄고, 여기저기 널려진 옷가지들을 제자리에 걸어 놓고, 가져갈 물건들을 챙기면서, 코에 땀이 배도록 한바탕 부산을 떨고 나서야 험레벌떡 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 챙겨야 할 물건을 놓고 와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경우도 생기곤 한답니다. 그러면 저는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구시렁거리게 되지요.

“봐요! 당신이 너무 서두르니까 물건을 자꾸 잊고 오게 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몸만 속 빠져 나올까? 뒷정리 같은 건 자기가 좀 하면 안 되

나?”

이렇게 남편과 함께 외출할 때 저의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애용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갈 준비가 다 되었다!’갈 준비를 끝낸 사람. 떠날 준비를 마친 인생... 어느 날인가, 예측하지 않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주님, 저 갈 준비 다 됐어요”라고 대답하며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맞게 될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느 날, 정말로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떠날 준비 되었니?”저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년 전 일입니다. 허리 근처에 통증이 있어 중년들이 흔히 겪는 요통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면서 낫기를 기대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통증은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요. 물리치료를 받는데도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저는 근처 병원에 찾아가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과정 중, 척추에 의심될 만한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인다고 빨리 혈액검사를 해 보라는 병원 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 병원의 연구 교수인 의사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께서 미리 사진을 봐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분으로부터 뼈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몸 어디선가 시작된 암이 척추까지 전이되어, 길어야 6개월을 못 넘긴다는 믿기지 않는 사망선고

였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름 침착해 보려고 애 써보기도 했지만 가슴이 쿵쿵거리고 밤에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는 앞으로 찾아올 육체적 고통이 더 무섭고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MRI 사진을 찍고 나오던 날, 병원 문 앞에서 마주친, 창백한 환자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잠깐 마주쳤지만 텅 빈 듯한 그 공허한 눈빛... 한쪽 다리 절반이 잘려져 나가고, 그 대신 가느다란 철제 심을 박은 그 환자의 잔영이 뇌리에 남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교회 식구들에게 유서를 썼고, 옷장과 사진첩 등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주변을 정리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군요. 그것은 이 땅 살림은 하나님 나라인 저 땅에서는 하나도, 정말 한 가지도,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저 땅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라고 고백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의 고백이 제 안에서도 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허무감을 넘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그 무엇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치 있고 진귀한 보석은 바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셨습니다!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게 필요

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저는 그 순간처럼 확실하고 명료하게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머리와 입술로만이 아닌 제 모든 존재로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순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욕심 냈던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하나! 예수님 만이 제게 필요한 분임을 이토록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서지고 먼지가 될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제 인생이지만 저는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제가 살았던 인생은 진실로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할 것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인생도 아니지만, 제 가치가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도록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부른 찬송이 바로 시편 137편의 찬송.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시 137:6)라는 찬송 시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저를 낮게 하시거나, 혹, 지금 바로 데리고 가신다 해도 그 어떤 경우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선하다는 고백을 드리는 제 영혼은, 이미 안식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밖에서 시동을 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영혼의 살림살이 때문에 당황하고 아쉽고 두려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며 불안하게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난 준비 다 됐어요!”를 외치는 남편처럼, 우리도 한밤 중이든 새벽이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주님! 준비 됐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 90:4-6).



WORLDVIEW NEWS

[이사회 / 정기총회]

2018년 제 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2017년도 사역을 마무리하며 신년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 (장소 동일)
- **일시** : 2018년 2월 20일 (화)
 - **이사회** : 오후 4시 30분
 - **총회** : 오후 6시

*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한국지부

VIEW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성경 (VIEW 한국지부 행정실장)
- **이메일** : viewinkorea@gmail.com
- **전화** : 010-5154-4088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학문 23권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23권(1~4호) 발행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투고는 상시이며,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인 <신앙과학문>(JAMS)홈페이지에서, 본 단체의 정회원에 한하여 투고가 가능합니다.

※동역회 홈페이지와 신앙과학문 투고 홈페이지는 별도 사이트를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가입 필요)

<신앙과학문 JAMS 홈페이지> <https://fs.jams.or.kr>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 **문의** : 02-3272-4967 (학회) / gihakyun@daum.net

<신앙과학문 발행일정>

2018년 3월 30일

2018년 6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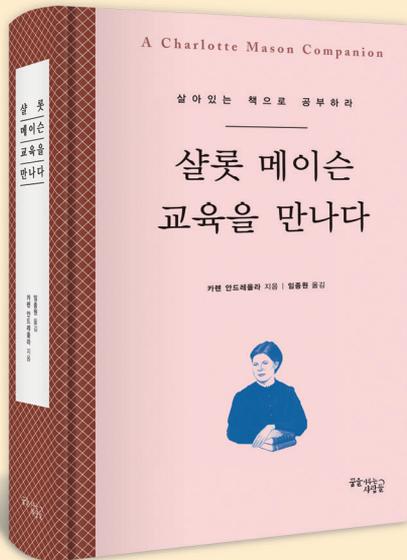
2018년 9월 28일

2018년 12월 31일

[간사 사임] 문한미 간사

간사 사무국 간사로 수고해온 문한미 간사가 12월 31일자로 사임합니다. 수고한 주의 자매에게 격려와 축복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험과 교과서에 갇혀버린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 자녀교육, 샬롯 메이슨 교육법으로 풀다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살랏 메이슨 교육을 만나다

카렌 안드레올라 지음 | 576면 | 정가 30,000원

배움이 즐거운 교육,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샬롯 메이슨(Charlotte Maria Shaw Mason, 1842-1923)은 20세기 초 영국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교육 사상가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학교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공립학교는 많은 부모들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이들이 지적인 열망과 호기심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라, 시험 위주의 기능적인 지식들을 주입하는 교육은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샬롯 메이슨은 학교교육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인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를 넘어서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했다. 그녀의 교육사상 속에는 부모들을 향한 신뢰와 격려가 가득하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지혜들이 가득하다.

샬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은 20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의 특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진리에 대한 믿음, 삶과 교육의 통합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녀교육 방법이다. -카렌 안드레올라

저희 가정에서는 샬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살아있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학습하는 효과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인경(한국라브리'Abri Korea 대표)

새들은 듣는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하여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롯 메이슨은 아이들이 풍부한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샬롯 메이슨의 이야기는 마치 아름다리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양한 개성의 아이들이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무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수잔 쉐퍼 맥콜리(영국 차일드트라이드교육센터 설립자)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13기

세계관 과정 모집



개강 2018년 1월 4일 (목) 오후 7:30 ~ 9:00

장소 CGN TV 스튜디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Curriculum

	날 짜	주 제	담 당	소 속
1	1/04	기독교 세계관 기초	이승구	합신대 교수
2	1/11	지식인들의 세계관-세계관 전쟁	김승욱	중앙대 교수
3	1/18	진리탐구방법론들의 진화	성인경	한국라브리 대표
4	1/25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인경	한국라브리 대표
5	2/01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강진구	고신대 교수
6	2/08	노동운동과 바른 정의관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
7	2/22	세계를 바라보는 눈 FTA	김태황	명지대 교수
8	3/08	종교와 과학: 우주와 생명의 기원	이승엽	서강대 교수
9	3/15	언론인의 자세와 기독교 세계관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팀
10	3/22	기독교 세계관과 경제문제	김승욱	중앙대 교수
11	3/29	정보 시대와 인간 그리고 윤리	성기진	포에시스 대표
12	4/05	기술현상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박동열	서울대 교수

수강료 5만원 (12과정 수강료)

송금계좌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주)세상바로보기

**신청서
접 수** editor.worldview@gmail.com

SAMSUNG



TV를 켜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리더의 공간이 되고



TV를 끄면 영감을 주는 아트 갤러리가 됩니다

공간의 프레임을 바꾸다

THE
FRAME

꺼져 있을 때 작품을 감상하는 아트모드 · 공간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프레임 디자인